

정책동향

August 2026 No.2

# ITU의 AI 관련 논의 동향 및 주요 활동

박민정 부연구위원  
국제협력센터

# ITU의 AI 관련 논의 동향 및 주요 활동

박민정 부연구위원

국제협력센터, mjpark@kisdi.re.kr

## 요약

- ITU 내 AI 관련 논의와 활동은 전기통신/ICT와 AI 간 연계가 확대되면서 기술·표준화, 국제 협력, 역량강화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음
  - 2017년 제1차 AI for Good Global Summit 개최와 ITU-T의 AI·머신러닝 관련 기술 논의 확대를 계기로 ITU의 AI 관련 활동 본격화
- ITU의 AI 관련 정책 논의는 2018년 전권회의(PP-18)에서 AI 관련 신규결의가 처음 제안된 이후 전권회의와 부문별 총회를 거치며, 관련 업무의 정책적 근거와 역할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PP-18과 WTSA-20에서는 AI 관련 업무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ITU의 구체적 역할 범위 등에 합의하지 못해 신규 결의 채택이 불발
  - 이후 PP-22 결의 214(AI기술과 전기통신/ICT)가 채택되면서 ITU 전체 차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WTSA-24 결의 101과 WTDC-25 결의 91이 이를 각각 표준화와 개발협력 부문에서 구체화함
  - 이를 통해 ITU 역할은 기존 권한과 핵심역량 내에서 ① AI를 활용한 전기통신/ICT의 효율성 향상과 ② 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전기통신/ICT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정립 됨
- 현재 ITU의 AI 관련 활동은 전기통신/ICT 관련 표준화와 개발협력 기능을 기반으로 AI 활용사례·지식공유, 역량강화, 준비도 진단, 실험·검증 및 도입 지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부문 연구반·포커스그룹을 중심으로 전기통신/ICT 분야의 AI 표준화를 추진
- AI for Good, UN AI Resource Hub 등을 통해 활용사례·지식을 발굴·공유하고 UN 기관·회원국·산업계·학계 간 국제 협력을 촉진
- AI Skills Coalition, AI Readiness, Sandbox·Lab 등을 통해 인력양성, 준비도 진단, 실험 환경 구축 및 국가·기관의 AI 도입을 지원
- ITU 내부적으로 최근에는 분산되어 있는 관련 활동을 표준화·역량강화·활용사례 및 국제 협력 등을 연계한 ‘One ITU AI offering’으로 보다 체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향후 ITU의 AI 논의에서는 신규 업무 및 활동의 논의뿐 아니라 기존 결의와 ITU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각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하는 문제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2026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될 PP-26을 앞두고, 결의 214 유지·개정 방향과 ITU의 AI 관련 역할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됨

## 01 개관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구로서 전파통신(ITU-R), 전기통신표준화(ITU-T), 전기통신개발(ITU-D)의 세 부문을 통해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위성궤도 자원의 국제적 관리·조정, 국제표준 개발, 연결성 확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는 4년 주기로 연합 전체의 정책과 전략적 방향을 정하며, 전파통신총회(RA),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 등 부문별 총회는 각 부문의 작업 방향과 연구과제를 정하고 관련 결의를 채택·개정함
- AI가 통신망의 운영·관리, 서비스 고도화, 보안 등 전기통신·ICT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편, 연결성, 데이터 전송 및 국제표준 등 전기통신·ICT 분야의 기반은 AI의 개발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어 ITU의 기존 업무와 AI 분야 간 접점이 확대되고 있음
  - ITU-T 연구반은 AI의 전기통신·ICT 적용에 관한 기술 연구와 국제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R과 ITU-D에서도 각 부문의 권한과 업무에 따라 AI 관련 기술 검토와 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출범한 AI for Good 플랫폼을 통해 AI 관련 다자간 협력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을 확대해 왔음
  - 이처럼 AI 관련 활동이 확대되면서, ITU가 AI 분야에서 수행할 역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기존 ITU의 전기통신·ICT 관련 권한과 업무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회원국 간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고는 ITU의 AI 관련 결의가 발전해 온 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2026년 현재 ITU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AI 활동과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자 함

## 02 ITU의 AI 관련 결의 논의

- ITU가 수행하는 AI 관련 논의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활동뿐 아니라 전권회의 및 부문총회에서 채택되는 관련 결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결의는 특정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된 방향을 반영하며, ITU가 해당 의제를 다루는 정책방향, 업무방식, 주요 이행사항 등을 제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임
  -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는 AI 관련 결의들은 관련 활동에 정책적·제도적 근거를 부여하는 동시에, ITU가 해당 의제를 다룰 역할과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ITU에서는 AI를 독립적인 의제로 다루는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ITU-T 연구반, 포커스그룹을 중심으로 AI·머신러닝의 전기통신·ICT 적용에 관한 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17년 제1차 AI for Good Global Summit 개최를 계기로 국제협력 활동도 확대해왔음
  - 이후 관련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AI 관련 업무를 ITU의 독립된 결의로 채택할 필요성과, 채택 시 어떠한 범위 및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표 1 | ITU의 AI 관련 결의 논의 경과

| 주요 활동·회의                      | 시기         | 주요 결과                                                                                                       |
|-------------------------------|------------|-------------------------------------------------------------------------------------------------------------|
| 제1차 AI for Good Global Summit | 2017.6     | AI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한 국제협력 플랫폼 출범<br>ITU의 AI 관련 국제협력 활동 본격화                                               |
| ITU-T FG-ML5G 설립              | 2017.11    | ITU-T 내 AI·머신러닝에 관한 기술·표준화 논의 확대                                                                            |
| PP-18                         | 2018.10~11 | AI 관련 신규결의 최초 제안<br>ITU 역할 범위 등에 대한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함                                                          |
| WTSA-20                       | 2022.3     | ITU-T 차원의 AI 신규결의 채택 불발<br>기존 AI 관련 ITU-T의 기술연구를 인정하고, 범 ITU 차원의 논의를 PP-22로 연계                              |
| PP-22                         | 2022.9~10  | 결의 214(AI 기술과 전기통신/ICT) 채택<br>ITU 전체 차원의 AI 업무범위와 기본 방향 설정<br>기존 권한과 핵심역량 내에서 전기통신/ICT 관련 AI 업무를 수행하는 원칙 확립 |
| WTSA-24                       | 2024.10    | 결의 101(전기통신/ICT를 지원하는 AI 기술에 관한 ITU-T 표준화 활동) 채택<br>각 ITU-T 연구반 소관 범위에서 전기통신/ICT 관련 AI 표준화 활동 추진            |
| WTDC-25                       | 2025.11    | 결의 91(전기통신개발 분야의 AI 기술) 채택<br>AI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ICT 인프라,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 등 ITU-D 역할 구체화                            |

- 초기 PP-18과 WTSA-20에서의 논의는 AI와 관련하여 ITU가 수행할 연구·표준화 및 역량강화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ITU가 AI를 어떠한 범위와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신규결의가 채택되지 못하였음

- PP-18에서 개도국의 AI 관련 역량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표준화·교육 등 ITU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제안과, ITU의 역할을 기존 전기통신·ICT 권한과 핵심역량 내로 한정하고 AI 일반의 규제·거버넌스 논의는 제외해야 하며, 타 국제기구와의 업무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함께 논의되었음
  - 결과적으로 ITU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결의에 어떻게 기술할지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의 채택이 불발되었음
- WTSA-20에서도 기존 ITU-T의 AI 연구·표준화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는 전반적인 공감대 있었으나, WTSA 차원의 별도 AI 결의 채택 필요성, ITU-T가 다룰 AI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지속
  - 신규 결의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WTSA-20은 진행 중인 ITU-T의 AI 관련 연구·표준화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3개 부문의 업무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AI 논의는 차기 PP-22에서 회원국 기고를 바탕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초기 논의를 종합하면 쟁점은 ITU에서 AI를 다룰 필요성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 새로운 기술 수요를 수용하면서도 ITU의 기존 권한 내에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ITU의 AI 관련 역할과 활동 범위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고 볼 수 있음

## I PP-22: 결의 214 채택과 ITU 전체 차원의 AI 업무 기본방향 설정

- 2022년 전권회의(PP-22)는 AI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최초 전권회의 결의인 결의 214(AI 기술과 전기통신/ICT)를 채택함
- 아프리카 지역은 개도국의 AI 역량강화와 AI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ITU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반면, 유럽지역 및 미국·캐나다는 ITU의 역할을 기존 전기통신·ICT 권한과 핵심역량 내로 한정하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안되어 논의되었음
- 논의 결과, 결의 214는 AI 일반에 관한 포괄적 정책·규제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세부 사업·산출물을 직접 규정하기보다, ITU가 전기통신/ICT 관련 기존 권한과 핵심역량 내에서 (within its mandate and core competencies) 수행할 AI 관련 업무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다음 두 축을 중심으로 상위 수준에서 제시하는 형태로 채택되었음
  - ① AI를 활용한 전기통신/ICT 효율성 제고
  - ② AI 기술의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전기통신/ICT 생태계 조성 촉진

- 한편, 개도국 지원, 역량강화와 국제기구 협력 요소는 반영하되, 준비도 지수, 톨킷, 위험완화 메커니즘 등 제안되었던 구체적 신규사업은 결의에 반영되지 않았음

### 전권회의 결의 214(부쿠레슈티, 2022) 주요 내용

- UNESCO, OECD, GPAI, ISO/IEC JTC 1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AI의 사회적 활용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모범사례·표준·원칙 등을 개발하고 있음 등을 주목
- ITU가 권한 및 핵심역량 내에서 다음을 수행할 것을 결의
  - i) 전기통신/ICT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기술 관련 연구,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전기통신/ICT 관련 AI 업무를 지속할 것
  - ii) AI 기술의 도입·활용을 위한 전기통신/ICT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것
- 사무총장에게 연합 차원의 AI 활동 조정, AI for Good 플랫폼과 ITU AI repository를 통한 UN 협력 지속, 개도국 포함 회원국의 이해 제고·정보공유 촉진 등 지시

## I WTSA-24: 결의 101 채택과 ITU-T 표준화 역할의 구체화

- 2024년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는 PP 결의 214가 설정한 상위 수준의 방향성을 ITU-T의 표준화 업무에서 구체화하는 신규 결의 101(전기통신/ICT를 지원하는 AI 기술에 관한 ITU-T 표준화 활동)을 채택함
- AI 관련 표준화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복수의 신규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나, 어떠한 내용을 결의에 포함할지, ITU-T의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결의를 통해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이 제시되었음
  - 아태 지역은 AI 안전성(safety), 신뢰가능성(trustworthiness), 위험평가, 보안 등을 구체적인 표준화 활동 항목으로 명시할 것을, RCC(구소련 연맹)는 회원국의 AI 활용 기반·역량강화 및 부문 간 조정까지 보다 더 폭넓게 포함시킬 것 등을 제안
  - 한편, 미국·호주·캐나다 등 ITU-T 활동은 각 연구반의 '기존 권한 안에서' 전기통신/ICT에 적용되는 AI 표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타 지역 기고문 대비 제한적인 내용을 제시
- 논의 결과, WTSA 결의 101은 각 ITU-T 연구반이 각 연구반의 권한 내에서(within their mandates) 전기통신/ICT에 AI를 적용하는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음
  - 관련 연구반이 각자의 기존 표준화 업무와 연계하여, AI 관련 권고, 지침, 모범사례, 평가절차 등을 개발 및 갱신하도록 하고, 개도국 기술지원과 국제 표준협력 관련 내용을 반영함

- AI 안전성, 위험평가 및 신뢰가능성 등 제안을 독립적인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거나, 국가 AI 전략 지원 또는 별도의 조정체계 구축을 지시하는 제안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WISA 결의 101(뉴델리, 2024) 주요 내용

- 다양한 표준개발기구·컨소시엄·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권한 내에서 AI 관련 표준·규격·모범사례·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등을 주목
- ITU-T 연구반에게 각 연구반의 권한 내에서 다음을 수행하도록 지시
  - ITU-T 권고·지침·모범사례·평가절차 개발 시 전기통신 운영·관리, 에너지, 기술적 신뢰성(reliability), 보안, AI 기반 네트워크·프로토콜, 서비스·애플리케이션, IoT 등 전기통신/ICT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
  - ITU-T의 AI 관련 권고를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할 것
- TSB 국장에게 정보 공유 촉진, AI for Good·국제 표준협력·개도국 기술지원 추진을 지시
- 회원에게 AI 관련 ITU-T 권고 개발·채택 기여 및 CWG-WSIS&SDGs를 통한 AI 기반 SDG 역량강화 활동 지원, 부문 간 조정 강화 작업 등 권유

## I WTDC-25: 결의 91 채택과 ITU-D 개발협력 역할의 구체화

- 2025년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5)는 PP 결의 214의 방향을 ITU-D의 개발협력 업무에서 구체화한 신규 결의 91(전기통신개발 분야의 AI 기술)을 채택함
- 아랍·아프리카 지역 9개국은 공동기고를 통해 개도국의 AI 도입·활용 지원을 위해 준비도 평가, 국가전략목표 설정 지원, 역량강화 등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제안
  - 이에 대해 ITU-D 차원의 AI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안된 업무가 ITU-D 권한과 전문성에 부합하는지, 추가 자원 부담이나 타 기구와의 업무중복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결과적으로 WTDC 결의 91은 AI 도입을 뒷받침 하는 전기통신·ICT 인프라, 회원국의 준비도 평가 지원과 정보·경험 공유 등 ITU-D의 기존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글로벌 AI 준비도·성숙도 지수 개발 제안은 결의에 포함되지 않고, 대신 ITU 전기통신개발국(BDT)의 기존 정책자문·인프라·역량강화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준비도 평가를 지원 하도록 조정
  - 또한, 관련 활동이 PP 결의 214가 설정한 권한 범위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

## WTDC 결의 91(바쿠, 2025) 주요 내용

- ITU-D가 다음 활동을 수행하도록 결의
  -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AI 도입을 뒷받침하는 기초 전기통신/ICT 인프라 구축 지원 활동을 추진
  - 전기통신/ICT에서 AI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도입에 따른 기회·과제 관련 지식·경험 공유 촉진
  - 관련 업무는 PP 결의 214에서 정한 권한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ICT 생태계 강화와 AI를 활용한 전기통신/ICT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
- 전기통신개발국장에게 BDT의 정책자문·인프라 개발·역량강화 전문성을 활용한 회원국의 AI 준비도 평가 지원, AI의 영향을 받는 전기통신/ICT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목표 설정·AI 도입 촉진·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 회원국 간 관련 정보공유 촉진을 지시
- 사무총장에게 3개 부문의 AI 관련 업무를 조정, 'One ITU' 통합 접근방식 추진 요구

## I 최근 이사회 논의: AI 활동 조정·감독

- PP 결의 214에 따라 ITU 사무총장은 AI 관련 활동과 결의 214 이행상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의 우선순위, 자원, ITU 내부의 조정 및 회원국의 감독 체계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은 ITU의 AI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AI 전담 이사회작업반'이나 별도 종합 업무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합의되지 않음
  - 대신 기존 WSIS 및 SDG 이사회작업반(CWG-WSIS&SDGs)에서 결의 214 관련 회원국 의견 수렴,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부문간 조정 강화를 지원하고, 사무국의 이행보고를 보다 상세화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
- 향후 ITU의 AI 논의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뿐 아니라, 기존 결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우선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03 ITU의 AI 관련 주요 활동<sup>1</sup>

### I AI 활동 접근방식 및 전략적 체계

- 앞서 살펴본 결의들은 ITU가 AI 일반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ITU의 기존 전기통신·ICT 권한과 핵심역량에 연계하며, 타 기구와의 업무중복을 지양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본범위를 형성해왔음
  - 실제 활동은 결의가 설정한 이러한 범위 아래 표준화, 역량강화, 활용사례·지식 공유, 실험·검증, AI도입 지원 등으로 확대 및 다변화되고 있음
- 본고는 2026년 이사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결의 214에 대한 보고)를 기반으로, ITU 사무총장이 연합 전체의 AI 활동을 전략적으로 관리 및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3대 전략축(①Solutions and Knowledge, ②Skills and Capacity, ③Standards and Policy)을 기준으로 ITU의 주요 활동을 살펴봄<sup>2</sup>
  - 이를 통해 ITU는 연합 각 부문, 사무국 내 분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AI 관련 활동을 하나의 ‘One ITU AI offering’으로 통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 | ITU AI 활동의 3대 전략축(사무국 포트폴리오)

| 전략축                     | 주요 기능                      | 대표 활동                                                                                                          |
|-------------------------|----------------------------|----------------------------------------------------------------------------------------------------------------|
| Solutions and Knowledge | AI 활용사례·지식·협력망 발굴·공유, 국제협력 | AI for Good 서밋 및 프로그램, UN Activities on AI Report, UN AI Resource Hub 등                                        |
| Skills and Capacity     | 인적·기관 역량강화, 실험·도입 지원       | AI Skills Coalition, ITU Academy AI 과정, AI Readiness Framework·toolkit, AI for Good Sandbox, AI for Good Lab 등 |
| Standards and Policy    | 기술표준·상호운용성·보안, 정책·규제 지원    | 연구반·포커스그룹, 국제표준협력, 정책·규제 지원 활동 등                                                                               |

1 본고는 2026년 이사회 제출 사무총장 보고서(C26/29, 2026.3.30)와 2026년 7월 작성 현재 ITU/UN 관련 홈페이지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2 다만 동 3대 전략축은 결의 214의 법적 해석이나 회원국 합의에 따른 권한 분류가 아닌 사무국이 기존 활동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제시한 포트폴리오임

## I Pillar 1: Solutions and Knowledge

### 가. AI for Good

- AI for Good은 ITU가 조직하고 50개 이상의 UN 기관·파트너가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AI 활용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산업계·학계·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함(2017년 출범)
  -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연례 서밋 중심에서 연중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지역 Impact 행사, 챌린지, 스타트업·청년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는 상시 플랫폼으로 전환되었음
  - 2024, 2025년에는 서밋 기간 중 AI Governance Day를 연계 개최하여, 각국 정부·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가 AI 거버넌스 원칙의 정책·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
  - 2026년 7월에는 ‘제네바 디지털 위크’ 하에 AI for Good 서밋, WSIS 포럼, UN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를 연계 개최

### 나. UN 시스템 내 AI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력

- ITU는 UNESCO와 함께 IAWG-AI(UN기관 AI작업반)를 공동 주재, 동 작업반은 60개 이상의 UN 기관이 참여하는 UN 시스템 차원의 AI 활동 조정체계로서 기관 간 정보공유·협력과 공동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UN System-wide Ethical Principles for AI, UN System White Paper on AI Governance 등 공동 자료를 마련
  - 2018년부터 UN 각 기관의 AI 프로젝트를 정리한 연례보고서인 UN Activities on AI Report 발간
  - UN 시스템 AI 활동 통합 검색·지식 허브인 UN AI Resource Hub 구축 및 운영(2025년 12월 출범, 2026년 7월 현재 55개 UN기관·1000개 이상의 AI 관련 활동 정보 제공, ITU·UNDP·UNESCO 공동 설계 및 운영)

## 다.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지원

- ITU는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sup>3</sup> 후속으로 UN총회가 설립한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와 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의 준비·운영에도 UNESCO, ODET 등과 함께 참여 중

※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 AI의 위험, 기회, 영향에 대한 독립적 과학평가를 제공하는 독립 전문가 패널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정부·민간·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UN 차원의 포괄적 AI 거버넌스 논의 플랫폼

## 라. 공공서비스·재난·도시·환경 분야 등

- GENIE.AI(개방형 생성형 AI 이니셔티브) 운영
  - 정부·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챗봇·디지털 비서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소스 참고구현과 기술 가이드, 협력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아울러 EW4AI(UN 재난조기경보 이니셔티브), U4SSC(UN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이니셔티브), Green Digital Action(2023년 COP28 계기 파트너십)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 AI 관련 연구·도구개발 및 기관 간 협력활동 수행 중

## I Pillar 2: Skills and Capacity

### 가. AI Skills Coalition 및 교육 플랫폼

- AI Skills Coalition은 AI for Good Impact Initiative 산하, ITU 주도의 AI 특화 UN 글로벌 역량강화 파트너십 플랫폼임(2025년 출범)
  - 민간·학계 파트너가 교육 콘텐츠·재정·홍보를 지원하고, ITU가 이를 연결·확산
- ITU Academy(ITU의 통합 온라인 역량개발 포털)를 통해서도 AI 기초, AI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AI 윤리, 사이버보안, 규제·정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중
  - 대표사례. EU Global Gateway 지원을 받아 정책담당자·규제기관·민간·시민사회 대상 혼합형 과정인 'AI governance in practice' 운영

3 UN Global Digital Compact(GDC): 2024년 UN의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한 'Pact for the Future'의 부속문서로, 디지털 포용·데이터 거버넌스·AI 거버넌스 등 공동원칙 제시(목표5: AI 국제 거버넌스 강화)

- 이 밖에 Young AI Leaders Community, AI Skills Accelerator for Girls, 아태 역량강화 프로젝트(일본 지원)·디지털 공동번영 프로젝트(한국 지원) 등 지역·계층별 맞춤형 AI 역량개발 사업도 병행

#### 나. AI Readiness, AI for Good Sandbox, AI for Good Lab

- AI Readiness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의 AI 도입을 위한 정책·인프라·데이터·역량 등 핵심요소를 평가·진단하는 프레임워크와 지원도구를 개발 중(2024년 출범, 사우디·중국 등 지원)
  - 2024년 AI Readiness Framework 개발, 2025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AI-RE Toolkit(자가진단·격차분석 지원 도구)을 설계 중
- AI for Good Sandbox는 개방형 데이터·AI 모델·컴퓨팅 자원·멘토링을 제공하는 분산형 실험환경으로, AI 솔루션 개발·검증·공유를 지원하고 오픈사이언스와 국제표준화 활동과의 연계를 촉진 (2025년 출범)
  - 2026년 7월 현재 모잠비크, 네팔, UAE, 짐바브웨 등 10개국과 연계하여 국가별 Sandbox 환경 구축을 추진 중
- AI for Good Lab은 개별 AI 지원·시범사업을 국가·지역 단위에서 연계하여 정책·국제표준·인력개발·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한 종합 지원체계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2026년 7월 출범)
  - △AI 준비도 평가·정책 △AI 역량개발(AI Skills Coalition·Innovation Factory 등 연계) △공공 AI 인프라(Sandbox 기반의 AI 실험·검증 및 ITU 국제표준 정합 지원) 등을 연계 지원 계획

## I Pillar 3: Standards and Policy

### 가. ITU 연구반 표준화 활동

- AI 표준화는 ITU-T 연구반을 중심으로, 각 연구반 위임 범위 내에서 통신 네트워크, 보안, 품질, 스마트시티, 멀티미디어, 환경영향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 중

표 3 | ITU-T 주요 연구반의 AI 관련 주요 활동 (2026년 7월 기준)

| 연구반  | AI 관련 주요 활동                                                                                               |
|------|-----------------------------------------------------------------------------------------------------------|
| SG2  | 운용 측면<br>ML5G·AITOM Toolkit 개발(AI/ML 네트워크 통합·운영관리)                                                        |
| SG5  | 환경, 전자기장, 기후행동 및 순환경제<br>AI 시스템의 환경영향 평가 방법 표준화                                                           |
| SG11 | 프로토콜, 시험 및 위조기기 대응<br>AI 기반 신호방식·시험·네트워크 최적화 도구, ML/AI 모니터링 지표 표준화                                        |
| SG12 | 성능, 서비스 품질 및 체감품질<br>ML 기반 QoS/QoE 예측 및 음성품질 평가                                                           |
| SG13 | 미래 네트워크 및 신형 네트워크 기술<br>미래망 AI/ML 표준화 로드맵, QoS 보장·부하분산, AI 에이전트 협업·통신, 통신망 내 생성형 AI 및 생성형 AI 벤치마킹 프레임워크 등 |
| SG17 | 정보보호<br>Agentic AI의 보안위협, 신뢰 프레임워크, AI 에이전트 신원관리 표준화                                                      |
| SG20 |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br>스마트 지속가능도시·커뮤니티 AI 활용 표준화                                                        |
| SG21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 및 케이블 TV 기술<br>멀티미디어 AI 응용, ISO/IEC 공동 JPEG AI 학습기반 이미지 코딩 및 embodied AI 시스템 표준화            |

- ITU-R 연구반도 전파통신 기능과 연계하여 AI 요소를 관련 연구에 반영 중
  - SG1(전파관리)은 AI·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주파수 모니터링을 연구하고, 전파 예측 분야에서는 기계학습 적용을 위한 Correspondence Group을 운영하며, SG6(방송업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워크플로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연구

### 나. 사전표준화와 국제표준협력

- ITU는 Focus Group, Global Initiative, Plugfest 등을 통해 사전표준화<sup>4</sup> 활동 수행 중
  - 2026년 7월 현재 AI 관련 Focus Group으로는 다음을 운영 중
    - FG-EAI(Embodied AI)
    - FG-AINN(AI-Native Networks)
    - FG-AI4SSC(AI for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FG-TIDA(Trust and Identity for Humans and Agentic AI)

4 사전표준화는 정식 표준화 작업에 앞서 활용사례, 요구사항, 기술적 과제 등을 검토하는 선행 활동을 말함

- 푸드 시스템, 재난·재해회복력·보건, 가상세계 등 분야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준·정책 논의도 준비 중
- 또한, ISO, IEC와 함께 World Standards Cooperation(WSC)을 통해 AI 표준 개발 협력을 강화 중
  - AI Standards Exchange Database 구축(870여개 표준·기술문서 제공, 2026년 7월 기준)
  - 딥페이크 탐지 관련 정책·기술 보고서 등 공동 발간
  - International AI Standards Summit 개최(2025년 12월 서울 Summit 개최)

#### 다. 정책·규제 관련 정보공유 및 지원

- AI Landscape Survey를 통해 회원국의 AI 정책·규제 현황과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GSR과 Digital Regulation Platform 등을 통해 AI 관련 정책·규제 동향, 경험 및 분석자료를 공유 중
  - 정책담당자와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AI 관련 정책·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규제 수단의 개발·활용을 지원
- 아울러 UN 아동권리위원회·UNICEF와 함께 ‘AI 맥락에서의 아동권리 공동성명’을 마련하는 등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에도 참여

## 0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ITU의 AI 관련 논의는 AI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기보다, 기존 전기통신/ICT 권한과 AI가 연계되는 영역에서 ITU가 수행할 역할을 상위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 개발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PP-18과 WTSA-20에서 AI 관련 신규결의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이후, PP-22 결의 214가 ITU 전체 차원의 AI 관련 역할과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WTSA-24 결의 101과 WTDC-25 결의 91은 이를 각각 표준화와 개발부문의 업무에 맞게 구체화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개도국의 AI 도입과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ITU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과, ITU의 기존 권한, 핵심 역량 및 타 국제기구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 간 논의가 반복적으로 조정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새롭게 제기되는 AI 관련 다양한 요청 및 수요 가운데 국제표준, 전기통신·ICT 인프라, 역량강화와 같이 ITU의 기존 기능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결의가 구성되어 왔음

- 반면, AI 전반의 정책과 거버넌스를 ITU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포괄하거나 별도의 내부 조정 체계를 신설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유지되어 왔음
- 실제 활동도 기존 전기통신·ICT 표준화,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기능을 기반으로 활용사례·지식공유, 역량강화, 준비도 평가, 실험·도입 지원 등으로 점차 확대·다변화되고 있음
  - AI for Good을 통한 활용사례와 지식 공유 및 다양한 국제협력, AI Skills Coalition·AI Readiness·Sandbox·Lab 등을 통한 역량강화와 도입 지원, 연구반·포커스그룹을 통한 AI 관련 표준화·사전표준화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
  - 최근 ITU 사무국은 AI 관련 활동을 ‘One ITU AI offering’으로 연계 및 체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ITU 내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과 자원 안에서 각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존 결의와 권한에 부합하도록 조정·관리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전권회의와 부문별 총회에서는 기존 AI 관련 결의의 유지 또는 개정 여부와,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정책 수요 가운데 어떤 사항을 ITU의 역할과 활동에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26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될 PP-26을 앞두고 결의 214의 개정 여부와 개정 범위, ITU의 AI 관련 역할 범위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만큼, 그간의 협상 경과와 각 지역 및 회원국의 제안과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ITU의 AI 관련 활동이 확대·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국제표준화와 개발협력·실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관련 국제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기술적 기여와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국내 산업·기술 기반과 연계되는 표준화 의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주도하는 한편,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공공서비스·AI 활용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ITU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며, 단발성 교육·행사를 넘어 표준·기술지원, 실험·검증, 현지 역량강화, 후속 성과관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등 종합적 검토·진행이 필요해 보임

 참고문헌

ITU (2018), “Minutes of the Seventeenth Plenary Meeting”, PP-18 Document 174.

ITU (2018a), “Proposals conc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PP-18 Documents ARB/72A1/34, EUR/48A2/21 and USA/18A3/2.

ITU (2022), “Proceedings and Final Acts of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2020 (WTSA-20)”.

ITU (2022a), “Proposal conc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WTSA-20 Document ARB/36A30/1.

ITU (2022b),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Bucharest, 2022)”.

ITU (2022c), “Proposals conc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PP-22 Documents AFCP/83A15/1, EUR/44A25/1 and CAN/USA/19A1/1.

ITU (2022d), “Final Report of the Work of Committee 4 ‘ITU-T Work Programme and Organization’”, WTSA-20 Document 88.

ITU (2024), “Proceedings and Final Acts of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2024 (WTSA-24)”.

ITU (2024a), “Proposals conc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WTSA-24 Documents APT/37A43/1, RCC/40A9/1 and AUS/CAN/USA/51/1.

ITU (2024b), “Multi-country Contribution: Proposal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Council”, Document C24/85(Rev.1), China, Brazil, Cuba, Pakist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ITU (2025), “Final Report and Final Acts of the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2025 (WTDC-25)”.

ITU (2025a), “Proposal for a New Resolu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WTDC-25 Document 43.

ITU (2026), “Report on PP Resolution 214 (Bucharest,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Telecommunication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ocument C26/29.

ITU <https://www.itu.int/>

AI for Good <https://aiforgood.itu.int/>

##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